

#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주민선<sup>1</sup> · 황윤영<sup>2</sup>

<sup>1,2</sup>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 Perception of LGBTQ Persons among Nursing Students

Min Sun, Chu<sup>1</sup> · Yoon Young, Hwang<sup>2</sup>

<sup>1,2</sup>Seoul Women's College,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a perception typology of LGBTQ persons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Q methodology to provide data for nursing education programs. **Methods :** Initially, 181 Q statements were extracted, and 38 were generated as the final Q sample. A total of 44 nursing students were selected as the P sample by considering a variety of academic learning experience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each case, the Q sorting yielded a systematic forced distribution of 38 Q samples ordered on a scale of 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erforming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using the PC-QUANL program. **Results :** The factor analyses revealed four types of perceptions that together amounted to 57.50% of variance: Type 1 (37.77%), Type 2 (12.09%), Type 3 (3.89%), and Type 4 (3.75%). The four type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LGBTQ persons identified were as follows: Type I, "Active acceptance type"; Type II, "Negative exclusion type"; Type III, "Neutral support type"; and Type IV, "Bystander empathy type." **Conclusion :** Educational programs for each type of perception of LGBTQ persons can be developed as useful materials for nursing subjects with various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Furthermore, it is thought that thi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ensitivity to various social minorities and the ability to provide nursing car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Percep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개선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다[1-3].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발생과 경기침체로 인해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1,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개인 인식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신뢰 정도나 경제 상황 등과 연계된 사회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다양한 차별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소수자의 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사회통합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 사회적 소수자 중 최근 한국 사회에서 주요 논쟁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성소수자이다[5].

성소수자는 성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다수자인 이성애자와 비교되는 소수자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성소수자 범주에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와 이성애 중심 정체성에 반대하며 이성애가 아닌 모든 것으로 규정하는 퀴어(queer) 등 여러 개념이 포함된다[1,5].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이래 감소하고 있으나, 그중 동성애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2013년 62.1%를 시작으로 2019년 57.1%, 2020년 57.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제 인식이 약 20%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또한 동성애자를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74.3%로 나타나, 다른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약 30% 이하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6]. 국가별 조사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뿐 아니라 전체 조사 국가의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성소수자 포용도를 보였으며, 전통적인 유교 사상과 위계적인 가족 질서 및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 부족이 낮은 포용도의 원인으로 고려되었다[7].

성소수자는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부각되기 시작해 현재 또는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성애와 배치되어 차별받고 배제되어 왔으며 아직 정확한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4]. 최근 성소수자들의 집단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성애 중심의 조직적인 반대 활동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2,8]. 우리나라는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나 연구가 초기 단계이므로, 비성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9]. 기존 국내 연구에서 비성소수자의 성소수자 인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 왔으나[5,10-1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에 성소수자 간호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제공되는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im과 Kim[13]의 연구에서도 성소수자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낮은 두려움과 부담감은 간호사의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 때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14]. 아울러 아직 사회적으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편견이 존재하며 이러한 편견이 내면화되면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가 필요하다[15]. 이를 위하여 우선 성소수자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인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주관성을 유형화하는데 유용한 Q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성소수자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인식 유형에 근거한 효과적인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Q 방법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 2. 연구절차

#### 1) Q모집단과 Q표본 선정

Q모집단은 Q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의견의 총체이며, 연구 주제나 개념에 대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진술문으로 구성된다[16]. 본 연구에서는 진술문 추출을 위하여 심리학, 사회학 및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성소수자 관련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교우관계, 대학 생활, 임상실습 및 사회 문화 영역 등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성소수자 인식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개별 면담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연구자의 대학 연구실에서 시행되었고,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다. 면담 초기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성소수자와 친구나 동료로 지

내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추가 개방형 질문을 하며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은 면담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사항을 녹음하고 기록하였다. 그 후 문헌고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총 181개로 구성된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후 Q모집단을 반복하여 읽으며 비슷한 의미의 진술문끼리 묶어서 범주화한 후, Q연구 경력이 있는 간호학 교수 2명의 검토를 거쳐 각 범주를 대표하는 Q표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Q표본은 이해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학 교수 2명의 자문을 받았고, 4명의 간호대학생에게 예비연구를 실시하여 Q표본 진술문의 이해와 분류에 어려움이 없는 지 확인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최종 38개의 Q표본을 확정하였다.

#### 2) P표본 선정

Q방법에서는 사람이 변인이므로 P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하여[16], 본 연구에서는 S시 소재 1개 간호대학과 J도 소재 1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44명을 P표본으로 선정 하였다. 간호학 전공학습 및 임상실습 경험 정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어, 전공학습 및 임상실습 정도가 상이한 간호대학 1~4학년생을 모두 포함하여 P표본을 선정하였다.

#### 3) Q표본 분류 및 자료분석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38개 각각의 항목이 적힌 Q카드를 제작하고, 38개의 진술문을 강제 분포시키기 위한 Q표본 분포도를 준비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먼저 전체 Q카드를 읽게 하여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Q카드를 긍정(+), 중립(0), 부정(-)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가장 긍정하는 것부터 차례로 골라 바깥쪽에서(+4) 안쪽으로 분류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동일 방법으로 부정 진술문도 분류하도록 하였다. 분류 후에는 양 극단의 Q진술문(+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N = 44)

Type	<i>P</i> * no	Factor weight	Age/ Sex	Grade	Religion	Among family/acquaintances LGBTQ <sup>†</sup> persons presence	Degree of understanding of LGBTQ persons	Degree of acceptance of LGBTQ persons
I (n = 15)	36	2.26	23/F	4	Catholic	Yes	Very high	High
	7	2.21	27/M	4	None	Yes	Very high	High
	4	2.05	22/F	3	None	No	Moderate	Very high
	40	1.83	23/F	4	None	Yes	Very high	High
	2	1.66	26/F	3	Protestant	No	Moderate	Very high
	5	1.49	23/F	3	None	No	Very high	High
	20	1.42	22/F	3	None	Yes	Moderate	High
	22	1.36	26/F	2	Buddhism	Yes	Very high	High
	32	1.13	23/F	3	None	No	Very high	High
	18	1.07	26/F	1	Protestant	No	Moderate	Moderate
	15	1.06	22/F	3	Catholic	No	Moderate	Very high
	25	0.93	23/F	3	Protestant	Yes	Very high	Very high
	42	0.83	27/F	4	Protestant	No	Moderate	Moderate
	35	0.78	25/F	4	Protestant	No	Very high	High
	37	0.75	24/F	4	None	No	Very high	High
II (n = 11)	11	1.44	21/F	1	Protestant	No	Very low	Very low
	17	1.07	20/F	1	Buddhism	Yes	Moderate	Low
	39	1.07	23/F	4	Catholic	No	Moderate	Low
	27	0.96	23/F	3	Protestant	Yes	Moderate	Very low
	16	0.89	21/F	2	Protestant	No	Moderate	Moderate
	8	0.85	25/M	3	None	No	No interest	Low
	31	0.81	33/F	3	None	No	No interest	Low
	19	0.80	24/F	4	Protestant	No	Moderate	Moderate
	28	0.70	27/F	3	Protestant	No	Very low	Low
	26	0.70	23/F	3	Protestant	No	Very low	Low
	12	0.20	22/F	1	None	No	Very high	Moderate
III (n = 11)	14	1.70	26/F	3	Catholic	Yes	Moderate	Moderate
	24	1.37	34/F	4	Buddhism	No	Moderate	Moderate
	44	1.15	24/F	4	Protestant	No	Moderate	Moderate
	43	1.15	23/F	4	Protestant	Yes	High	Moderate
	33	0.81	26/F	3	None	Yes	Moderate	Moderate
	1	0.74	23/F	3	Protestant	No	High	Moderate
	41	0.67	23/F	4	None	No	Moderate	High
	13	0.62	23/F	3	Protestant	No	Moderate	Moderate
	38	0.61	33/F	4	None	No	Moderate	High
	34	0.52	23/F	3	None	No	High	High
	10	0.48	21/F	1	None	Yes	High	High

(continue)

Type	<i>P</i> * no	Factor weight	Age/ Sex	Grade	Religion	Among family/acquaintances LGBTQ <sup>†</sup> persons presence	Degree of understanding of LGBTQ persons	Degree of acceptance of LGBTQ persons
IV (n=7)	30	1.12	23/F	3	Catholic	Yes	Moderate	High
	21	1.10	22/F	3	Protestant	Uncertainty	Low	Moderate
	23	1.07	22/F	3	Protestant	No	Low	Moderate
	29	0.87	29/F	4	Protestant	No	Moderate	Moderate
	6	0.75	22/F	3	None	Uncertainty	High	High
	3	0.73	23/F	3	None	No	No interest	Moderate
	9	0.63	24/M	3	None	No	Moderate	Moderate

\**P*<sub>1</sub>=*P*-sample;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er.

4, -4) 선택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Q표본 분포도상 가장 부정하는 경우(-4)를 1점으로 하여 가장 긍정하는 경우(+4)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는 QUANAL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항목의 표준점수(Z-score)와 주요인 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여러 요인수를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와 총 설명 변량 등을 고려하여, 최선으로 판단된 4개 유형 분류를 선택하였다.

### 3. 윤리적 고려

자료를 수집하기 전 S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SWCN-201912-HR-001-003)을 받았다. 심층면담 및 Q표본 분류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 비밀보장 및 원할 경우 불이익 없이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함께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 후에는 답례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자가 재직 중인 대학의 연구대상자는 학기 중 연구자의 강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 자발적인 연구참여 동의 획득과 심층면담 혹은 Q표본 분류를 시행하여, 평가나 성적 부여와 관련해 취약한 대상

자로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Q요인의 형성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유형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P* 표본은 총 44명으로 제 1유형 15명, 제 2유형 11명, 제 3유형 11명 및 제 4유형 7명으로 분류되었다. Q요인별 가중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속한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각 요인을 분류하는데 기여한 대상자임을 의미한다<Table 1>. 총 4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57.50%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1유형 37.77%, 2유형 12.09%, 3유형 3.89% 및 4유형 3.75%로 나타났다<Table 2>.

### 2. Q유형의 분석

#### 1) 제 1유형 : 적극적 수용형

제 1유형 대상자는 15명으로,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무종교였고, 가족과 지인 중 성소수자가 많았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가 높았다<Table 1>. 제 1유형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Percentages, and Correlation between Types (N=44)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Eigen value	16.62	5.32	1.71	1.65
Variance(%)	37.77	12.09	3.89	3.75
Cumulative percentages(%)	37.77	49.86	53.75	57.50
Type I	1.00			
Type II	-.18	1.00		
Type III	.70	.03	1.00	
Type IV	.60	.18	.68	1.00

같다. 제 1유형은 인간은 남자(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가족과 지인이 성소수자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다양성 존중은 사회의 기본 역할이므로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이나 양육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제 1유형이 타 유형과 비교 시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하게 동의한 항목은 가족이나 지인이 성소수자라면 수용할 수 있으며( $Z=2.12$ ), 성소수자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Z=1.39$ ),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것을 목격하면 나서서 도와야 하는 등( $Z=1.21$ ) 소수자 보호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었다( $Z=1.21$ ). 반면 타 유형 대비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부정적 동의 항목은 성소수자에게 불편함과 안타까움의 양가감정이 있으며( $Z=-1.87$ ) 동성애/양성애는 이해가 힘든 혼란스러움으로( $Z=-1.48$ ),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이 어렵고( $Z=-1.41$ ) 성소수자가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Z=-1.06$ )<Table 4>. 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2.26)를 나타낸 36번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 항목은 ‘인간은 남자(여자)다움의 삶이 아닌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의 가족이나 지인이 성소수자라면 수용할 수 있다’이었다. 가장 동의한 이유로 성별에 대한 규정으로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하며, 자신의 지인 중에 성소수자가 있어 성소수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가장 강한 부정

적 동의 항목은 ‘나는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이나 양육에 반대한다’, ‘나는 성소수자와 사회적인 관계는 잘 유지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관계는 원치 않는다’이었다. 이러한 항목의 선택 이유로 (자녀) 양육에서는 성별보다 자녀를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 지가 중요하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사회 전반적인 성소수자 수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즉, 성별 규정으로 한계를 정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 양육자는 성별 특성보다 실제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제 1유형을 적극적 수용형으로 명명하였다.

## 2) 제 2유형 : 부정적 배척형

제 2유형 대상자는 11명으로, 대상자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가족과 지인 중 성소수자가 적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Table 1>. 제 2유형은 생물학적 성을 바꾸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성소수자를 수용하지 않으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과 양육에 반대하였다. 또한 퀴어 축제 등 성소수자의 활동은 불편해서 피하게 되며,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입장을 이해하였다<Table 3>. 제 2유형이 타 유형 대비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하게 동의한 항목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과 양육에 반대하며( $Z=2.46$ ), 생물학적 성의 전환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Z=2.24$ ) 성소수자의 활동을 피하게 되고( $Z=2.18$ ), 동성애/양성애를 거리낌이 들고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움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Z=2.17$ ). 반면 타 유형 대비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부정적 동의 항목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수용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Z=-2.18$ ) 가족이나 지인이 성소수자라면 수용할 수 있는 등( $Z=-1.82$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Z=-1.41$ )<Table 4>.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1.44)를 나타낸 11번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 항목은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퀴어 축제나 성소수자 활동을 보게 되면 불편해서 피할 것이다’이었다. 가장 동의한 이유로 성소수

Table 3. Q-statements on LGBTQI People and Z-scores

(N = 44)

Q-Statement		Z-score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Q1.	Humans should live a life that is like me, not a life like a man(woman).	2.10	1.24	1.71	1.23
Q2.	I think that changing biological sex is against the laws of nature.	-0.74	1.65	-1.64	0.62
Q3.	LGBTQ persons should be respected as human beings.	1.87	0.96	1.43	1.35
Q4.	It is a distorted image that LGBTQ persons are sexually promiscuous.	0.41	0.06	0.61	0.91
Q5.	I have an ambivalence of discomfort and pity for LGBTQ persons.	-1.22	1.06	1.33	-0.43
Q6.	I can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with LGBTQ persons, but I don't want personal relationships.	-1.13	1.04	-1.19	-0.52
Q7.	I neither affirm nor deny LGBTQ persons.	-0.42	-0.04	0.36	-0.37
Q8.	I am against the adoption or raising of children by same-sex couples.	-1.04	1.43	-1.41	-0.64
Q9.	I can accept if my family or acquaintances are LGBTQ persons.	1.08	-1.87	-0.07	-1.18
Q10.	Homosexuality/bisexuality i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onfusing.	-1.46	1.28	-0.93	-0.28
Q11.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is premature.	-0.75	0.49	0.41	-0.19
Q12.	Family love and bonds are more important than same-sex and opposite-sex differences.	1.26	-0.64	1.36	0.12
Q13.	I consider that LGBTQ persons are also equal members of society.	1.61	0.68	1.39	0.78
Q14.	LGBTQ persons should only express and act within their community.	-1.45	0.52	-1.67	-1.39
Q15.	Discrimination against LGBTQ persons is a form of violence.	1.11	0.55	0.73	0.35
Q16.	LGBTQ persons are uncomfortable and burdensome to deal with.	-1.27	0.99	-0.94	-0.68
Q17.	Respect for diversity is a basic role of society.	1.23	0.14	1.61	1.49
Q18.	I don't want to cause any inconvenience to me as a LGBTQ persons.	-0.62	1.06	0.36	0.01
Q19.	People can become a true member of society and contribute to society through marriage and childbirth.	-0.90	-1.47	-1.07	-0.86
Q20.	Homosexuality and heterosexuality should be treated equally.	1.15	-0.76	0.67	1.36
Q21.	I can understand the opinions against LGBTQ persons.	-0.04	1.04	0.65	-0.23
Q22.	As times have changed, the perception of LGBTQ persons must also change to be receptive.	0.83	-1.38	0.82	0.75
Q23.	I can understand LGBTQ persons, but accepting them is difficult.	-0.98	1.27	-0.22	0.25
Q24.	The human rights of LGBTQ persons have nothing to do with me.	-0.96	0.03	-1.06	0.01
Q25.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bout LGBTQ persons.	0.31	-0.68	0.44	0.57
Q26.	If there is no harm to me, there is no prejudice against LGBTQ persons.	-0.20	-0.97	0.91	1.60
Q27.	I can accept the LGBTQ persons I meet in society as good colleagues.	0.76	-0.30	0.53	1.09
Q28.	I can step in and help when I see LGBTQ person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0.43	-0.68	-0.37	-1.28
Q29.	I think that LGBTQ persons have no choice but to suffer injustice.	-1.05	-1.44	-0.63	-1.78
Q30.	I respect LGBTQ persons, but I don't care more than that.	0.07	0.63	0.65	1.53
Q31.	It's acceptable for LGBTQ persons to live in my immediate neighborhood.	0.83	-0.50	0.80	0.95
Q32.	It is natural that LGBTQ persons are not accepted socially.	-1.35	-0.89	-1.01	-2.20
Q33.	Social interest and support for LGBTQ persons is necessary.	0.51	-1.06	0.07	0.44
Q34.	I can try to get closer to LGBTQ persons first.	0.25	-1.79	-1.04	-0.58
Q35.	I will accept it once the social standard for LGBTQ persons is set.	-0.03	-0.64	-0.19	0.16
Q36.	I think that the request for non-discrimination by LGBTQ persons is a selfish attitude.	-0.66	-0.27	-1.06	-1.80
Q37.	I think that protecting all minorities is a social responsibility.	0.69	-0.85	-0.80	0.10
Q38.	I want to avoid queer festivals and LGBTQ activities because they are uncomfortable.	-0.27	1.17	-1.51	-1.26

자나 이성애자 모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퀴어 축제 참가자가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보기에 불편하며 보기 싫은 것을 피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였다.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 항목은 ‘나의 가족이나 지인이 성소수자라면 수용할 수 있다’, ‘성소수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이었다. 선택 이유로 가족이나 지인이 커밍아웃을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므로 내 주변인이 성소수자가 아니기를 바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한 어떠한 사람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고려하였다. 즉, 성소수자 활동이 싫어서 피하는 것을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였고, 자신의 주변인이 성소수자 커밍아웃을 하면 난감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상에 근거하여 제 2유형을 부정적 배척형으로 명명하였다.

### 3) 제 3유형 : 중립적 지지형

제 3유형 대상자는 11명으로,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무종교였으며, 가족과 지인 중 성소수자가 적은 편이었으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는 높았다<Table 1>. 제 3유형은 다양성 존중이 사회의 기본 역할이므로 성소수자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남자(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소수자에 대해 불편함과 안타까움의 양가감정이 있었다. 또한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소수자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고려하였다<Table 3>. 제 3유형이 타 유형 대비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하게 동의한 항목은 성소수자에게 불편함과 안타까움의 양가감정이 있으며( $Z=1.52$ ), 동성/이성 간 성적 차이보다는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유대가 중요함이었다( $Z=1.11$ ). 반면 타 유형 대비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부정적 동의 항목은 생물학적 성의 전환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므로( $Z=-2.16$ ) 퀴어 축제 등 성소수자의 활동을 피하게 되고( $Z=-1.39$ ),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과 양육에도 반대하는 내용이 있었다( $Z=-1.33$ )<Table 4>. 제 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1.70)를 나타낸 14번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

항목은 ‘나는 성소수자에게 불편함과 안타까움의 양가감정이 있다’, ‘다양성 존중은 사회의 기본 역할이다’이었다. 가장 동의한 이유로 친한 지인인 동성애자가 본인을 드러내는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에는 불편감을 느끼지만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감정이 공존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 항목은 ‘생물학적 성을 바꾸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표현하고 활동해야 한다’이었다. 선택 이유로 과거와 달리 사회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요즘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성소수자가 그들의 커뮤니티에서만 활동하면 그들의 문화가 확장되고 다른 문화와 공존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성소수자에게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면서도, 다양성 존중을 사회의 역할로 인식하며 사회 내 성소수자의 활동을 인정하는 측면을 보였으므로, 제 3유형을 중립적 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 4) 제 4유형 : 방관적 공감형

제 4유형 대상자는 7명으로,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무종교였으며, 가족과 지인 중 성소수자가 적은 편이었고 대부분 성소수자 이해와 수용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Table 1>. 제 4유형은 동성애와 이성애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등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다. 또한 성소수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서서 도울 생각은 없었다<Table 3>. 제 4유형이 타 유형 대비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하게 동의한 항목은 나에게 피해가 없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Z=1.69$ )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고( $Z=1.09$ ), 동성애/이성애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Z=1.00$ ). 반면 타 유형 대비 표준점수 -1.00 이상 강한 부정적 동의 항목은 성소수자의 차별금지 요구는 이기적인 태도로( $Z=$



Table 4. Types Item and Difference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N = 44)

Type	Q-statement	Difference
	Q9. I can accept if my family or acquaintances are LGBTQ persons.	2.12
	Q34. I can try to get closer to LGBTQ persons first.	1.39
	Q28. I can step in and help when I see LGBTQ person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1.21
	Q37. I think that protecting all minorities is a social responsibility.	1.21
I	Q16. LGBTQ persons are uncomfortable and burdensome to deal with.	-1.06
	Q18. I don't want to cause any inconvenience to me as a LGBTQ persons.	-1.09
	Q23. I can understand LGBTQ persons, but accepting them is difficult.	-1.41
	Q10. Homosexuality/bisexuality i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onfusing.	-1.48
	Q5. I have an ambivalence of discomfort and pity for LGBTQ persons.	-1.87
	Q8. I am against the adoption or raising of children by same-sex couples.	2.46
	Q2. I think that changing biological sex is against the laws of nature.	2.24
	Q38. I want to avoid queer festivals and LGBTQ activities because they are uncomfortable.	2.18
	Q10. Homosexuality/bisexuality is something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onfusing.	2.17
	Q6. I can maintain social relationships with LGBTQ persons, but I don't want personal relationships.	1.98
	Q16. LGBTQ persons are uncomfortable and burdensome to deal with.	1.95
	Q23. I can understand LGBTQ persons, but accepting them is difficult.	1.58
	Q18. I don't want to cause any inconvenience to me as a LGBTQ persons.	1.14
	Q27. I can accept the LGBTQ persons I meet in society as good colleagues.	-1.09
II	Q25.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bout LGBTQ persons.	-1.12
	Q17. Respect for diversity is a basic role of society.	-1.30
	Q34. I can try to get closer to LGBTQ persons first.	-1.33
	Q31. It's acceptable for LGBTQ persons to live in my immediate neighborhood.	-1.36
	Q33. Social interest and support for LGBTQ persons is necessary.	-1.41
	Q12. Family love and bonds are more important than same-sex and opposite-sex differences.	-1.55
	Q26. If there is no harm to me, there is no prejudice against LGBTQ persons.	-1.74
	Q20. Homosexuality and heterosexuality should be treated equally.	-1.81
	Q9. I can accept if my family or acquaintances are LGBTQ persons.	-1.82
	Q22. As times have changed, the perception of LGBTQ persons must also change to be receptive.	-2.18
	Q5. I have an ambivalence of discomfort and pity for LGBTQ persons.	1.52
	Q12. Family love and bonds are more important than same-sex and opposite-sex differences.	1.11
III	Q8. I am against the adoption or raising of children by same-sex couples.	-1.33
	Q38. I want to avoid queer festivals and LGBTQ activities because they are uncomfortable.	-1.39
	Q2. I think that changing biological sex is against the laws of nature.	-2.16
	Q26. If there is no harm to me, there is no prejudice against LGBTQ persons.	1.69
	Q30. I respect LGBTQ persons, but I don't care more than that.	1.09
	Q20. Homosexuality and heterosexuality should be treated equally.	1.00
IV	Q28. I can step in and help when I see LGBTQ person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1.07
	Q32. It is natural that LGBTQ persons are not accepted socially.	-1.12
	Q36. I think that the request for non-discrimination by LGBTQ persons is a selfish attitude.	-1.14

-1.14)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Z = -1.12$ ), 성소수자가 차별 받을 때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Z = -1.07$ )<Table 4>. 제 4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1.12)를 나타낸 30번 대상자가 가장 동의한 항목은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나에게 피해가 없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다’이었다. 가장 동의한 이유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에게 피해가 없다면 성소수자 역시 똑같은 사람이므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가장 강한 부정적 동의 항목은 ‘성소수자는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표현하고 활동해야 한다’, ‘나는 성소수자의 차별금지 요구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이었다. 선택 이유로 성소수자는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닌 사회적으로 표출됐을 때 다양한 성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차별금지 요구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즉,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소수자는 사회적 편견 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제 4유형을 방관적 공감형으로 명명하였다.

#### 5) 유형간의 공통적 견해

이상 네 유형의 간호대학생이 성소수자 인식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강하게 동의한 항목은 ‘인간은 남자(여자)다움의 삶이 아닌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성소수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다’이었다. 반면 강한 부정적 동의 항목은 ‘결혼과 자녀 출산을 통해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이었다<Table 5>.

## IV. 논의

본 연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한 결과,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짐을 파악하였다. 이에 4개의 인식 유형별 특성에 따라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1유형은 적극적 수용형이었다. 제 1유형은 인간은 남자(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하며 가족과 지인이 성소수자라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성소수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것을 목격하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과 양육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이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며 성소수자에게 열린 태도를 갖게 되고, 대상이 다를 뿐 누군가를 좋아하는 행위의 가치는 동일함을 깨달으며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결과[11]를 지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한국 내 동성애 수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3], 19~29세가 타 연령 대비 성소수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편견을 보였다는 결과[4]와도 유사하였다. 아울러 Park과 Park[5]의 청소년 대상 연구 결과, 성적 취향은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므로 가족이나 친구가 성소수자일 경우 행복 추구 권리를 지지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제 1유형의 일반적 특성 중 무종교 비율과 가족이나 지인의 성소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가 높았던 점도 성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수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무종교일수록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명시적 편견과 부정적 내면 인식이 잠재된 암묵적 편견이 낮고,

Table 5. Consensus Items and Average Z-scores

(N = 44)

	Q-statement	Average Z-score
Q1.	Humans should live a life that is like me, not a life like a man(woman).	1.57
Q3.	LGBTQ persons should be respected as human beings.	1.40
Q13.	I consider that LGBTQ persons are also equal members of society.	1.11
Q19.	People can become a true member of society and contribute to society through marriage and childbirth.	-1.08

성소수자를 가족이나 친구로 만났을 때 접촉 인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3,4]와, 간호대학생과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종교 성향이 강할수록 동성애에 배타적 태도를 보인 결과[12,14]와 유사하였다. 대학생은 사회 현상에 관심이 많은 시기로서, 성소수자와의 긍정적 교류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수록 선입견이나 배타적 인식이 감소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키며 관심을 갖게 된다[10,11]. 그러므로 제 1유형에게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서 적극적 수용을 실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교육적 중재를 가이드 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이를 통하여 성소수자의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보고된 성소수자 비친화적 캠퍼스 환경[17]을 개선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

제 2유형은 부정적 배척형으로, 생물학적 성의 전환을 수용하지 않았고, 동성애/양성애를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움으로 인식하여 퀴어 축제 등 성소수자 활동을 피하며,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과 양육에 반대하였다. 또한 성소수자에게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수용적으로 바뀌어야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친밀도가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대비 가장 낮으며[1],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과 비교 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배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4]를 지지하였다. 성소수자 인식에는 서로 다른뿐만 아니라 올바름과 정상성이라는 판단이 개입되며[1], 동성애가 생소하고 사회 주류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과[9]와도 유사하였다. 제 2유형의 일반적 특성 중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가 타 유형 대비 낮고 성소수자 이해정도에 '관심 없음' 답변이 있는 점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고려된다. 제 2유형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용을 불필요한 것으로 고려함으로써, 20대 이상 일반인 연구에서 성소수자가 보통 수준 미만의 사회적 인정을 받으며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난 Yoon과 Song[8]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낮

은 친밀도는 접촉이 빈번하지 않음으로 인한 긍정적 관계 형성의 부족 때문으로[8], 직간접접촉 경험 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의 감소가 보고되었다[4]. 성소수자는 겉으로 식별이 어렵고 높은 수준의 편견과 혐오로 인해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소수 집단이므로[1,8], 이들에 대한 접촉 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4]. 그러므로 제 2유형에게는 일상생활 중 자주 접하는 소셜미디어나 웹툰, 가족과 친구 및 지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성소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대학생은 소셜 미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37.5%) 없으면 안될 것으로 고려하는 비율(31.8%)이 높고[18], 정보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매체로 웹툰을 고려하며 특히 모바일 웹툰은 이동성과 휴대성으로 인해 감상 비율도 증가추세이므로[19,20],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20~40대 대상 연구에서 성소수자 혐오의 원인으로 부정확한 지식과 고정관념 및 편견이 보고되었고[9], 외적 자극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과 개방적인 소통 부족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켰다[10,21]. 그러므로 일회성 교육이나 중재의 참여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고와 자아성찰로 연결될 수 있는 개입 방안이 필요하며[9], 이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교육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 3유형은 중립적 지지형이었다. 제 3유형은 다양성 존중이 사회의 역할이므로 성소수자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소수자에 대해 불편함과 안타까움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성소수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고려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성소수자 인식이 환경과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 획득의 한계가 성소수자를 이해하려는 적극적 노력 대신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는 결과[11]를 지지하였다. 동성애라는 개인적 선택에 관한 사적 영역에서는 수용적이나, 차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에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결과[5]와, 임상에서 성소수자 환자를 간호한 간호사가 성소수자에

게 낮은 불편감, 부담감과 동시에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결과[13]와도 유사하였다. 제 3유형은 제 1유형과 동일하게 성소수자의 사회적 존중과 수용 및 동성 커플의 자녀 양육에 동의하였으나, 성소수자에게 양가감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시작하지 못하는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소수자 인식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15], 대학생은 다양한 경험과 내적 갈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그러므로 제 3유형에게는 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참여를 격려하고, 성소수자 인식 개선 활동 외에도 상호 교류와 행동의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기회 및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겠다. 또한 제 3유형의 중립성에 영향을 주는 성소수자에 대한 양가감정의 특성을 확인하고 매개변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 4유형은 방관적 공감형으로, 동성애/이성애를 존중하고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등 성소수자를 존중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다. 성소수자가 사회에서 수용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서서 도울 생각은 없었다. 이는 성소수자가 가시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관심도가 5점 만점에 2.14점으로 사회적 소수자 중 가장 낮았던 Yoon[8]의 결과와, 20~40대 대부분이 동성애 현안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된 결과[9]를 지지하였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보다 주목할 사항은 무관심과 무정책으로, 성소수자의 비가시화는 혐오 문화를 만연하게 하고 적극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언급한 보고[15]와 유사하였다. 제 4유형은 성소수자 수용에 대하여 내적으로 갈등하며 양가감정을 보인 제 3유형과 달리,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두기와 무관심 및 수동적 태도가 주된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측면이 있으나, 더 이상 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수의 이성애자가 형성한 사회적인 편견은

변화될 필요가 있다[22]. 이에 제 4유형에게는 다양성 수용의 관점에서 나와 다른 타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일상의 캠페인이나 공공활동 참여 및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접촉기회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 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학 내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한편 대학생은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무관심이나 관계형성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10], 제 4유형의 부정성 관련 특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은 공통적으로 인간은 남자(여자) 다음의 삶이 아닌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성소수자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결혼과 자녀 출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성소수자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등한 인간으로 고려하며, 사회 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간호대학생은 향후 간호사로서 대상자 중심의 근거기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며, 편견 없는 포괄적인 태도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14]. 동시에 성소수자 환자의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옹호자와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13,14], 지속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유형을 파악하고, 성소수자 이해 도모를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적인 다양성과 이에 따른 간호 대상자의 변화에 대해 숙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근거한 성소수자 인식 유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직면하는 성소수자 환자와의 관계 형성 및 간호 제공에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임상실습 지원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간호사로서 필요한 성소수자 환자에 대한 이해와 간호 대처능력 향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 인식 유형은 적극적 수용형, 부정적 배척형, 중립적 지지형 및 방관적 공감형의 4개 유형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57.50%였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한 성소수자 인식 유형별 교육프로그램은 성소수자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인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대상자 간호를 위해 유용한 교육으로 활용될 것이다. 나아가 여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민감성의 증진과 함께 다양한 간호대상자에 대한 간호 제공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한다. 1)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3) 간호대학생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1. Yoon IJ.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to human rights problem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minority and plans for improving their human rights: With a focus on categorization and universal membership.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2020;12(2):219-255.
2. Jones C. Balancing safety and visibility: Lesbian 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Lesbian Studies*. 2020;24(3):272-285. <https://doi.org/10.1080/10894160.2019.1678335>
3. Youn G. Attitudinal changes toward homosexuality during the past two decades (1994-2014) in Korea. *Journal of Homosexuality*. 2018;65(1):100-116. <https://doi.org/10.1080/00918369.2017.1310512>
4. Chu Y, Kim KT, Kim B. Public attitudes towards social minorities: The case of South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Report No.: 2019-11.
5. Park S, Park YK. Adolescents' ideas on the issues related to sexual minorities :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2021;53(3):29-58.
6. National Statistics.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2020.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1.
7. Naaranoja KR.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and LGBT issues [master's thesis]. Helsinki: University of Helsinki; 2016. p. 1-94.
8. Yoon IJ, Song YH.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minorities. *Journal of Social Research*. 2018;19(1):95-131.
9. Jung AK, Yoon E. Exploring South Korean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s same-sex relationships, lesbians, and gays: A qualitative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0; 32(2):583-608.
10. Kim SY. Attitudes toward sexual minority person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4;52(2):23-52.
11. Kim SY. College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LGBTQ.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2020;9(4):297-319. <https://doi.org/10.30974/kaice.2020.9.4.14>
12. Lee BJ.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s towards lesbians and gay 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006;22(2):1-19.
13. Kim MK, Kim HY. The nurse's experience in caring for LGBT patients: Phenomenological stud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3):541-551. <https://doi.org/10.5392/JKCA.2021.21.03.541>
14. Park SA, Shin KS, Kim HY. Factors influencing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nursing students: Focusing on sexual assertiveness and sex

- stereotyp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20(7):68-77.  
<https://doi.org/10.5762/KAIS.2019.20.7.68>
15. Jang SY, Kim JH, Kim HK, Na YJ, Jung HH, Ryu NH, Cho HI, Han GR. A survey on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14. Report No.: 11-1620000-000580-01.
16. Kim HK. Q methodology: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Seoul: Communication Books;2008. p. 86-95.
17. Pearson J, Wilkinson L, Muller C. Adolescent same-sex attraction and academic outcomes: The role of school attachment and engagement. Social Problems. 2007;54(4):523-542.  
<https://doi.org/10.1525/sp.2007.54.4.523>
18. Kwak M.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usage of college students on the language used in social media.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021;37(3):275-290.  
<https://doi.org/10.18627/jslg.37.3.202111.275>
19. Yun E, Lee M, Yoo W. A qualitative study on the permitting process of medical webtoon with a grounded theory.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017;10(2):33-54.
20. Kim MO, Kim HS. Modeling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mobile webtoon. Design Convergence Study, 2016;15(4):71-93.  
<https://doi.org/10.1525/sp.2007.54.4.523>
21. Kim YG, Hahn SJ. Homosexuality in ancient and modern Korea. Culture, Health & Sexuality. 2006;8(1):59-65.  
<https://doi.org/10.1080/13691050500159720>
22. Jang I.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and self-esteem on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mong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 17(8):560-569.  
<https://doi.org/10.5392/JKCA.2017.17.08.560>